

지역 매아리

부안청소년수련원, 최우수시설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쾌거'

부안청소년수련원이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 3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안청소년수련원은 시설운영 및 관리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운영이 전반적으로 타 수련시설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평가돼 최우수시설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 문숙자 교육청청소년과장은 "부안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웃음과 희망이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 공간으로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청소년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전북 공공도서관 중에서 처음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활용품 등을 직접 설계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구현하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는 공간이자 보다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침이다. 중앙도서관은 이달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노트북과 3D프린터, 3D펜, 레이저 커터 등 장비를 구축해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과 함께 1층 로비 인테리어나 재정보호한다. 또 6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코딩프로그램'도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차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령,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간 간 협업 메이커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배양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책 읽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동 시민공원을 시민 야외 독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 SOC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보존 서고와 문화전시, 휴게 공간, 주차장 등의 확보를 위해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도서관 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5일 부안 동문안 당산 현장에서 16년전 도난당한 돌오리상 1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도난 16년만에 제자리로

국가민속문화재 부안동문안당산 돌오리상 회수

부안군은 5일 부안 동문안 당산 현장(동중리 2·3번지 일원)에서 16년전 도난당한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1점'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부안군의 수사요청 후 관련 사건에 내사에 착수하여 2019년 2월 문화재를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문화재는 본래 전북 부안군 동중리 당산의 석주 위에 놓여있던 것으로 돌오리상을 절취한 절도범은 장물업자들에게 유통하려 시도하였으나 지정된 문화재를 쉽게 유통할 수 없어 불상의 장소에 장기간 은닉 보관하고 있었다. 이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한 끝에 이번에 회수하는 성

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에 회수된 돌오리상은 대략 50*20cm 크기의 오리 형상으로,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어 조각한 것이다. 부안 동문안 당산(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은 3m가 넘는 높은 석주와 한 쌍의 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오리상은 원래 석주 상단에 놓여있던 것으로 부안읍의 주산인 성황산을 향하고 있었다. 또한 부안읍성의 동서남북 세 곳에 건립된 당산은 특이하게 돌오리상으로 장식되어 있어 부안지역의 독특한 민속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부안서문안 당산(국가민속문화재 제18호)에는 1689년(康熙28) 숙종 때 건립되었다는 명문이 있어 동문안 당산도 같은 해인 1689년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에서 "부안은 당산의 고장으로 오래 동안 주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아 가정의 행복과 지역의 풍요와 평안을 가져왔으며 이번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반환을 계기로 그동안 마을에서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진행되지 못한 당산제를 복원하였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부안군은 이번 문화재 반환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CCTV 모니터링 및 관리인들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안군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부합되는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친환경 가열연무소독으로 전환

모기 유충구제 집중 방역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올해 방역소독 방법을 가열연막소독에서 가열연무소독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가열연막 방식은 경우를 불문한 연소시켜 살충제를 희석해 살포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열연무방식은 경우 대신 물에 살충제를 녹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기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매개체인 해빙기 유충구제 작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 보건소는 방역기동반 2개 반을 구성하여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하수구와 정화조, 물웅덩이를 중심으로 모기유충 방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일정한 장소에만 산란하는 모

기의 특성을 이용해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유충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함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모기 유충 1마리 박멸은 성충 500마리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일본뇌염 등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측정돼 시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친환경 소독 실시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부기념식서 동학인포고문 낭독해 달라"

유기상 고창군수, 문체부 장관 면담서 낭독 공식화 건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4일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시 동학인포고문 낭독 공식화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재 지정 등 문체부 소관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동학인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이 되는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동학인포고문'을 정부공식 행사시 동학농민혁명유적지, 고창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장이 직접 낭독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고창군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함께 요청했다.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고창군 공음면 소재)는 전라북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29호)로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신청을 했지만 동학농민혁명 관련 통설이 정립되지 않아 학계와 지역의 의견이 나뉘며 추후 연구 성과를 고려해 재심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전봉준 장군 생가터(고창군 고창읍 소재) 또한 도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을 통해 생가를 도 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사적으로 승격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주요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3건(전라전년 관광재정 조성, 휴 웰스 관광거점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건의했다.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명은 보국안민, 제복구민, 적양적애, 자주평등을 외치며 민중 스스로에 의해 자주적이고 역동적으로 일어나 민주주의 운동의 효시다"며 "지역정치권과 중앙부처 등과 힘을 합쳐 정부 기념행사에 동학인 포고문 낭독은 물론 역사교과서 수록 등 그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지역 관광자원 연계한 건강밥상 개발 시동

고창군이 지역 생태·역사자원을 연계한 '건강밥상(한반도 첫 수도 밥상)' 개발에 나섰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토속자연 밥상을 통해 고창군 대표메뉴를 개발할 건강밥상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업체는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있고,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당 식품을 조리하는 업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

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통해 사실여부 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읍·면별 토속음식과 식자재 조사 실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향후 참여업체 선정과 역량강화교육, 한반도 첫 수도 밥상 메뉴(리뉴얼) 스토리텔링 개발, 맛 지도 및 코스 개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현안업무 철저 추진 '당부'

정읍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청원초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와 읍·면·동 6급 이상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훈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24일 동학마라톤대회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며, "중앙부처·전북도의 시정평가 분야와 2019~2020 정읍방문의 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 벚꽃축제 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강사로 나선 ㈜진시너지 소프트웨어 대표가 다양한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방안을 안내했다. 강의는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 공직자들의 빅데이터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감싸주어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